

템플스테이 차별화 필요

전문가 양성·콘텐츠 개발 등 세미나서 제기

“템플스테이가 활성화되려면 그 사찰만의 특성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어느 질에 가도 똑같은 템플스테이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고)이 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템플스테이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주경(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금강 스님(미항사 주지), 강신겸 수석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박종희 소장(동국대 관광산업연구소), 나윤중 교수(동명정보대), 오순환 소장(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국제포교사 수준의 외국어와 불교지식을 겸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요 시장 조사를 통한 세분화 등도 요구했다.

주경 스님은 “조계종이 문화와 체험을 통한 불교전파 및 포교의 가능

성을 인정하여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신겸 수석연구원은 “템플스테이는 기존의 일반 대중관광의 특성이 ‘패스트 투어’에서 고요히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는 ‘슬로우 투어’로 바뀌는 고객 성향에 가장 잘 맞는 관광형태”라고 주장했다.

금강 스님은 승가교육에 템플스테이 운영자 양성시스템을 포함시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영상자료 등을 구축해 템플스테이 진행을 원활하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현고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수련법회를 대체하거나 변형하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좀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월 14~24일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사람을 모집한다. (02)732-9926

김지연 기자

앞으로 10년 “수행+포교”다

조계종 포교원 전진대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 스님)이 포교원 별원 10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회향하고, 다가올 10년을 서원’하는 포교전진대회를 1월 8-9일 양일간 김제 금산사 일원에서 개최했다.

나눔, 회향, 발원, 서원의 장으로 열린 이번 포교대회에는 전일 포교원장 임도(3개), 정령(6대)스님을 비롯 전 현직 포교원 소임을 맡은 스님 20여명과 중앙신도회 백장기 회장,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 등 포교원 산하 30여 단체 회장단 및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첫째날 모악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포교원은 별원 10년을 앞두고 새로운 미래 10년을 위한 포교방안을 준비해 왔다”며 “향후 10년 종단의 포교 비전은 ‘자유로운 나, 평화로운 세상’이며 포교 전략은 ‘수행 플러스 포교’이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포교원은 향후 10년 포교 주요과제로 조계종 종전(가칭, 불교성전)편찬, 간화선 센터운영, 지도자 리더십센터 설립, 각종 수행 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서 보급, 북한이탈주민 법회지원, 신도시 포교당 설립위한 특별 분담금제 도입 등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준엽 기자

봉은사 선지식 초청법회 연다

1월16일~2월27일 11차례

지난해 선사와 강백을 초청 8차례 <육조단경> 논강을 펼쳤던 서울 봉은사가 올해는 ‘내 안의 부처님을 보라’를 주제로 선지식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1월16일부터 2월27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

안 진행되는 선지식 초청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지관·활안 스님), 참선수행(교우·명진 스님), 교학(월운·해남 스님), 포교(정락·정념 스님), 수행(해인·정무 스님), 계율(성우 스님) 등 각 분야의 스님들이 조별법 문헌한다.

한명우 기자

“사람답게 사는 길 다시 생각할 때”

신춘 원로대담

박이문 박사(연세대 특별초빙교수)

대담:위영란 편집부국장

올들어 가장 추웠던 1월 11일 박이문(76) 교수의 일산 자택을 찾았다. 철학적 시인으로 불리고 싶다는 원로 철학자 박이문 교수는 유려한 서체로 써 내린 자작시 ‘열반’이 담긴 응접실 액자 아래에서 손수 재스민 차를 우려 주었다.

‘소라 같은 부처의/귀는/바다의 너그러움/미소를 듣고//깨진 코질러진 귀/깨진 가슴/돌인데/부처는 웃네 (시집<나비의 꿈>)

▲젊은 시절 낯선 곳으로의 유학을 결행했고, 30여년 외국에서 대학 강단에 서셨습니다. 오랜 외국생활을 통해 얻은 것은 뭔가요?

—무엇보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학문 체계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스울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철학, 사상 이론적으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학문적 업적을 내기 위한 성취해야겠다는 본심이 제가 유학을 결심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적인 분야에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물론 외국생활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60년대 해도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상당한 주눅이 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외국 생활 초기에도 공부만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내 스스로 사서 한 고생한 것이지만 무척 외롭기도 했어요. 또 언어적 한계도 컸습니다. 불어를 공부하다 영어로 강단에서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았습니디. 마땅한 배경도 없었던 이방인이었지만, 혼자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냈습니다.

▲요즘 말하는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 당시에는 외국 나간다면 무슨 배신자나 배반자 같은 시각으로 보기 까지 했어요(웃음). 세계화라는 것은 잘난 나라를 흉내 내기 하라는 게 아니고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주체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중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정신적 가치를 다루는 불교 역할은?

—폰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을 개선하는데 종교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불교는 매우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저는 불교가 일종의 철학적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불교의 근본이 4성제 8정도라면 종교의 일반적 요소는 거의 없어요. 물 할론(Animism)적인 관점의 다른 종교와는 약간 차별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종교라는 생각입니다. 윤회와 연기적 세계관을 명

확하다면 지식정보화 시대가 아무리 고도화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게 없다고 봐요.

▲시대의 지성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나올 제 자서전 서문에는 제 삶을 지배한 중요한 가치 3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투명성’입니다. 진리를 사실을 객관적이고 사실 그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열정(Intensity)’ 밀도 있는 치열한 삶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일본일초도 함부로 하지 않고 명료한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정직성(authentic)’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진실한가라는 자문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정체성은 내적 외적 환경과 상황에서 늘 변하는 겁니다. 역사적, 시대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의 잔재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해방 후, 상당히 극성스런 성격으로 변했어요. 좋게 말하면 다이나믹하지만 달리보면 거친면도 있거든요. 일본에게 수탈당하고 한국전쟁, 좌우이념 갈등을 겪으면서 형성된 국민의 정체성을 좀더 세련되게 가다듬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정체성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파르퐁 파르퐁(죄송합니다)’이라고 말하는 거나 일본사람들이 ‘쓰미마세, 쓰미마세(실례합니다)’에 입에 달고 있는 것이 꼭 그들의 정체성은 아니거든요(웃음). 중요한 것은 주체성입니다. 자기중심을 명확히 세우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그것 역시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고 봅니다. 모 자동차회사에서 나오는 코란도(Korando)라는 자동차의 이름이 ‘Korea can do’의 줄임말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자력과 힘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 같아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한대인들이 쾌락을 좇는 성향이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적 귀족’이 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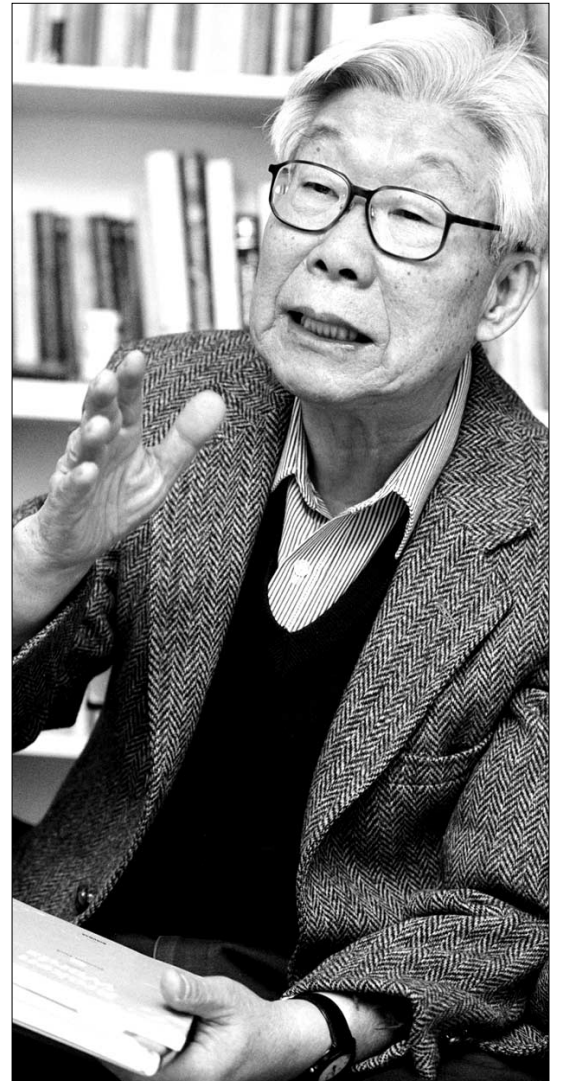
—귀족이란 말에 대한 거부감 가진 분들이 있겠는데... 하하. 그렇지만 누구나 귀족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죠.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적이고, 정직하고 비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건 연구실에서 공부할 하건 뭘 해도 질할 수 있겠죠.

▲한국사회의 갈등을 지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다면?

—무엇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있는 사실을 자기 기본대로 색깔해서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논리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앞서 말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대로 정립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국민들에게도 희망이 있겠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치지도자나 국민들이 지나치게 근시안적이고 감정적인 측면들을 쉽게 표출한다

자기중심 잡고 당당하게 살며 정체성 찾자

‘논리적 투명성·정직·열정’일생의 좌우명



박이문 교수는 1930년 충남 아산 출생으로 서울대 불문학 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화여대에서 불문학을 강의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지에서 30여 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다. 포항공대 교양 철학 교수로 정년퇴임하고 <나비의 꿈> 등 시집을 비롯해 50여 권의 저서와 논문을 썼다.

는 겁니다. 일부사람들처럼 가슴에 ‘한’을 가지고 나도 한번 거꾸로 복수해야겠다는 식으로 문제를 풀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방식은 남북문제를 비롯해 다른 주변 국가들의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2-3년 안에 ‘동지의 철학’을 정리해서 책을 내볼 생각이에요. 저는 동지라는 것이 우리가 이상적인 세계를 보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는 원시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적 이론, 종교적 세계관 등,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이 동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도 이속에 있습니다. 정리=조용수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서울 보광사와 부산 보광사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의 근본원인은 선학원 일부 이사스님들의 사리사욕입니다

은사스님께서 지적하신 지 얼마되지 않아 청정수행도량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은사스님을 오랫동안 모셨던 시자로서, 그리고 창건주 승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참회합니다.

선학원의 일부 이사스님들은 자신들의 사심을 채우기 위하여 은사스님의 유연(육성녹음), 유연공증, 위임공증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서울 보광사와 부산 보광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단법인 선학원 70여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력사태의 근본원인이며 창건주 권한의 존중이라는 선학원의 오랜 관행과 정관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입니다.

이제 선학원 이사회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사사임에 있어서 분원장스님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분원 분포에 따른 지역안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사스님께서서는 언제나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외적으로는 선객양성, 교육불사를 통한 인재양성에 진력하라는 유지를 남기셨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기 2549년 1월 12일

서울 보광사 창건주 승계인 현 중 합장